

1 개요

갈구미(渴玖媚)는 주인공 이름이고 혼자 살다가 자신의 사후 남들이 시신을 거둬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행기(물그릇)에 몸을 누이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이다.

2 내용

갈구미는 혼자 토성(애월읍 고성리 소재 향파두리) 밖에 살면서 지조를 지켰다. 토성 내에 거주하던 김통정은 갈구미가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서 밭로 바위를 뚫아서 샘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었다. 그 샘물을 ‘햇부리, 빌레물, 장수물’ 등이라 부른다.

갈구미는 혼자 살기 때문에 사후에 시신을 거둬 줄 사람이 없어서 까마귀의 먹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땅에 묻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. 빌레물에 행기(물그릇)를 띄워 두면 지나가던 사람이 눈여겨 볼 것이라 생각하고, 그 시신을 건져서 땅에 묻어 줄 것이라 믿었다. 갈구미는 죽을 때가 되자 행기에 몸을 눕히고 편안히 잠들었다.

3 특징

갈구미 전설은 김통정 장군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다. 김통정은 삼별초를 이끌고 향파두리(애월읍 고성리)에 토성을 쌓고 투쟁하다가 전사하였다. 김통정 어머니가 토굴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‘종신당’ 전설이 있는데, 이는 ‘갈구미’ 내용과 유사하다.

4 핵심어

갈구미, 김통정, 토성, 행기(물그릇), 삼별초, 향파두리, 토성, 햇부리, 빌레물, 장수물

5 원전 서지사항

갈구미(제주도, 《제주도전설지》, 1985)

6 관련 자료